

전북대병원 · 도, 지역필수공공으로 강화 맞손

이원택 도지사·양종철 병원장 면담...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지원 · 군산전북대병원 성공 개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대학교병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필수공공으로 강화와 군산전북대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10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양종철 병원장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면담을 갖고 지역필수공공으로 강화 방안과 군산전북대병원의 성공적인 개원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병원장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비롯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전북대병원이 새만금권 국가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는 지역필수의



최근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면담을 갖고 지역필수공공으로 강화 방안과 군산전북대병원의 성공적인 개원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의료 분야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특정 의료기관만의 과제라 아니라 지역 의료체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전북대병원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군산전북대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이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지역 의료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개원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군산전북대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전주 소재 국도 21호선 신미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침수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관할지역 풍수해 비상근무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도로 침수 대비 철저히 점검”

김윤덕 국토부장관, 전주시지역 지하차도 풍수해 대비 태세 안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전주 소재 국도 21호선 신미지하차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침수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주지방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관할지역 풍수해 비상근무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배수로, 집수정,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의 작동상태와 비상시 대피순환이, 진입 차단시설 작동상태 등 대피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올 여름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우시 전국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지방국토관리청별 풍수해 비상근무 체계 등 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하차도는 집중호우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침수방지시설과 진입차단시설의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할 지방국토관리사무소는 취약구간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선제적 진입차단 등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여름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우시 전국 지하차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지방국토관리청별 풍수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소방, “차가 물에 잠기면 창문 통해 빠져 나와야”

최근 3년 차량 침수 53건... 침수도로·지하차도 진입 금지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침수차량 탈출요령과 호우시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 사고는 총 53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건, 2024년 17건, 2025년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마철 침수도로, 지하

차도, 하천변 도로, 둔치주차장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보다 창문’이다. 물이 차오르면 차량 안쪽의 수압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고, 전기장치가 멈추면 창문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침수 초기 전원이 작동할 때 창문이나 선루프를 먼저 열어 탈출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하차도와 침수도로는 짧은

시간에 물이 급격히 차올라 수 있어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이 고립될 경우에는 차량에 머물지 말고 창문을 통해 신속히 빠져나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침수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진입 금지 △차량 비위가 잠기기 전 우회 △차량이 멈추기 전 창문 개방 △고립 시 차량을 두고 높은 곳으로 대피 △정확한 위치를 119에 신고하기를

강조했다.

차량에서 탈출한 뒤에는 물살이 빠른 방향을 피하고 높은 곳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지하차도명, 교량명, 도로명, 주변 건물, 전신주 번호, 표지판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 접근에 도움이 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보이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차량이 고립될 경우 창문을 통해 신속히 탈출한 뒤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만호 기자

도, 농생명산업대상 후보자 공모 접수

9월 2일까지 신청... 농생명 분야 우수 개인·단체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2일까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대상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생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알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주역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전북 대표 농생명 분야 시상이다.

올해는 △지속가능 농어업 △활력있는 농어촌 △미래격려기 농생명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속가능 농어업’ 부문은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활력있는 농어촌’ 부문은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미래격려기 농생명’ 부문은 식품과 식품소재, 미생물 등·식품자원 등을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 대상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어촌 마을, 농생명·축산식품 분야 종사자,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농어업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식품사업자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어촌 마을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11월 초 열리는 ‘2026년 농업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전주시, 올 하반기 과장급 정기인사 단행... 90명 대규모 보직 이동

전주시가 이달 13일자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명에 대한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 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와 승진, 직무대리 발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규모 인사다.

특히 분청과 완산·덕진구 간 인력 교류를 확대해 조직 내 균형을 맞추고 주요 현안 추진 부서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보직 이동을 보면 흥소리 지원 순환과장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설미정 지방행정사무관은 전주시정연구원 파견, 최정미 지방행정사무관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됐다.

조미정 녹지정원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김은성 완산구 서신동장은 인권법무과장으로 발령됐다. 임두수 재난안전과장은 광역도시조성과장으로, 안재정 119전북본부에 파견된 지방시설사무관은 재개발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습미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지원과장으로, 이상숙 기업지원과장은 청년정책과장으로 이동했으며, 양병숙 예술단운영사업소장은 전주인재육성재단 파견근무로, 김선옥 평생학습과장은 문화산업과장으로, 이은정 지방행정사무관은 덕진구에서 전입되어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 받았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은 전주문화재단 파견근무로, 김선옥 평생학습과장은 문화산업과장으로, 이은정 지방행정사무관은 덕진구에서 전입되어

조직 안정과 변화 대응 위한 전면 쇄신... 분청·구청 간 교류 확대 세대 교체·전문성 강화 동시 추진... 시민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

관광산업과장으로 발령됐다.

김학서 지방보건사무관은 전주시 보건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전주시 체육회로 파견됐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임형진 한옥마을사업소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은 119전북본부로 파견됐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임정민 광역도시조성과장은 하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충환 지방복지사무관은 덕진구에서 전입되어 하천관리과장으로, 이은혜 지방행정사무관은 덕진구에서 교통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건 분야에서는 이항찬 지방행정사무관이 완산구에서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김병희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전주시 보건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박진현 전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은 덕진보건소장으로 발령됐다.

농업·복지 분야에서도 인사가 단행돼 유은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산업과장으로, 최은옥 여성이동과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으로, 진지희 지방행정사무관은 덕진구에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장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정명순 문화산업과장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박금희 지방행정사무관은 복지해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박현영 지방행정사무관은 덕진구에서 전입하여 동물위생과장으로 각각 보직을 받았다.

구청과 사업소 간 인사도 이뤄졌다. 전용숙 인권법무과장은 예술단운영사업소장으로, 송정하 지방행정사무관은

덕진구에서 전입하여 한옥마을사업소장으로, 최삼 감사담당관은 완산구로, 조은숙 지방공업사무관은 전주시정연구원 파견을 마치고 완산구로 이동했다. 이옥 자치행정과장은 덕진구로, 김춘식 급수과장은 덕진구로, 최정숙 지방행정사무관은 완산구로 각각 전보됐다.

승진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권기준 신성장산업과장 직무대리와 김성호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정식 과장으로 임명됐다.

또 이정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산업과(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파견) 지방행정주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송중현 덕진구 5급 직무대리요원은 급수과장으로, 문인수 하수과장 직무대리는 하수과장으로 정식 발령됐다.

강현적 김미정, 박기영, 백순아 지방행정주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또한 윤창섭 지방시설주사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박금숙 재개발건축과장 직무대리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했고, 김호준, 이병욱 지방행정주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급 승진했다.

조성민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덕진구 전보와 함께 승진 발령됐다. 조정란 지방행정주사는 덕진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김승건 지방환경주사는 덕진구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박하영 지방시설주사는 덕진구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직급승진했다.

6급 팀장급 인력을 과장급으로 발탁하는 심사 승진 및 직무대리 인사도 이뤄졌다.

장태철 회계과 경리팀장은 세정과장

직무대리, 장재훈 공영개발과 공공주택조성팀장은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송주이 인구조획과 다문화지원팀장은 여성이동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발탁됐다.

또 장희광 체육산업과 복합스포츠타운팀장은 체육산업과장 직무대리, 배상열 교통안전과 교통시설팀장은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김혜경 전주시춘식 급수과장은 덕진구로, 최정숙 지방행정사무관은 완산구로 각각 전보됐다.

이밖에도 김은선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마음치유팀장은 전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로, 강덕순 녹지정원과 녹지정책팀장 김선향 도시관리정책과 도시관리정책팀장 정환란 국가유공팀장, 최경국 인사팀장, 주영희 장애인지원지원팀장, 황인표 재활용팀장은 각각 완산구로 심사승진하여 5급 직무대리요원으로 발령됐다.

김명숙 청년일자리팀장, 김정훈 기획팀장 이병구 주력산업정책팀장, 이원순 농식품정책팀장 이정현 청소년지원팀장 최수경 수도정책팀장, 이현종 영상관계팀장, 전병구 건축행정팀장, 김일민 공간정보팀장은 각각 심사승진하여 덕진구 5급직무대리요원으로 발령됐다.

한편 정년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 13명은 퇴직준비교육 파견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승기·김용태·김태훈·장진영·조배수·정소연·백석진·허민석·황경순·조미영·박정선·이규형·정은연 사무관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 내 세대교체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민선 9기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중심 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